

NEAR News

하나되는 동북아시아, 하나되는 공동체 NEAR | One Northeast Asia Region, One Community NEAR
2015. 3-4

Vol. 61



이번 호의 동정

NEAR활동 | 사무국소식 | 회원자치단체 동정 | 회원단체 행사일정
제2회 NEAR청소년에세이공모전 우수상

기획 취재

제7차 세계물포럼

해외파견공무원 기고

인터뷰- NEAR사무국에서의 1년 근무를 마치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 News

NEAR News는 회원단체의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NEAR의 공식 메신저로 창간되었습니다. NEAR사무국의 활동상황, 회원단체 동정, 각종기고 및 공지사항 등을 담아 격월로 발간하여, 회원단체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NEAR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NEAR News는 회원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이며, 동북아시아지역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NEAR News에 수록하고 싶은 좋은 원고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NEAR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Vol. 6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 78개 광역지방정부(73개 정회원 및 5개 옵저버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방외교협력체이자 국제기구입니다.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연합헌장을 채택하고 경제인문, 교육문화교류, 환경,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관광, 해양어업, 광물자원개발 조정, 에너지 기후변화, 여성 아동, 생명 의료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최대의 지방정부 협력기구인 AER(유럽 지방정부연합), R20(기후변화행동연합) 등 국제기구와도 교류를 활성화하여 파트너십 체결, 공동사업추진 등 동북아를 넘어서 전세계와 소통하는 국제협력네트워크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NEAR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연합의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광역지방정부는 연합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 활동

제10회 NEAR 실무자워크숍 개최 예정(5월 중)

NEAR실무자워크숍은 NEAR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회원단체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행사로써, 이번 워크숍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NEAR사무국에서는 제10차 실무위원회 개최, 2015 국제포럼개최, 회원단체 확대, 특히,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NEAR 청년 인턴 국제교류프로그램 추진 등 201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며, 이 밖에 주제와 관련하여 각 회원단체의 발표와 회원단체 홍보 및 NEAR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 등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제10회 NEAR실무자워크숍에 대한 세부계획은 추후 각 회원단체로 통지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 드린다.

NEAR실무자워크숍은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0회째를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참가인원은 75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실무자간의 상호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4 NEAR실무자워크숍 회의 모습

사무국 소식

김재효 사무총장 퇴임



2014년 12월 31일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국제연수실에서 김재효 사무총장과 이종환 사무처장의 퇴임식이 거행되었다.

김재효 사무총장은 2011년 5월 NEAR 사무국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3년 7개월 간의 재임기간 동안 '하나되는 동북아지역, 하나되는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사무국을 경상북도에 장기 존속시키고 한국의 세종시, 중국의 지린성, 러시아의 하카시아공화국 등 3개의 신규회원단체를 유치하였으며 AER(유럽지방정부연합회) R20(기후변화 대응 세계지방정부행동기구) 등의 국제기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연합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일본 이즈모시의회의원 포항시 방문 업무지원

타타노 쓰요토 시마네현 이즈모시의원을 단장으로 한 이즈모시의회의원 7명과 이즈모상공회의소 3명이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경상북도 포항시를 방문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단 일행은 포스텍 국제관에서 포항시의회의원, 포항상공회의소 및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두 도시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포항시와 이즈모시의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함께 연구해 나가는 심포지엄을 만들어 양국 중앙정부간의 정치 문제와는 별도로 한일 두 지방도시 간 편안한 우호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즈모시는 일본술(이즈모 호마레)의 발상지이며 포항은 과메기가 특산품이므로 양국간의 특산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의 제안도 있었다. 포항시와 이즈모시는 2009년 첫 교류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두 지방정부와 시의회,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매년 교류활동을 이어왔으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상호교류가 중단된 바 있고 이번 방문은 그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식방문이다.

이 날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서는 일본파견공무원과 일본전문위원이 일본 이즈모시 방문단 일행과 동행하며 포항방문기간 중 통역과 안내를 지원했다.



국제기구 ICLEI 방문

1월 22일 NEAR 사무국 기획총무과 박창호 과장을 비롯한 사무국 대표단이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ICLEI 한국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5 대구경북 세계 물포럼 홍보방안 협의와 조직 및 회비제 운영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ICLEI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 등 사무소 관계자들과 약 2시간에 걸쳐 ICLEI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NEAR와 ICLEI 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한편, ICLEI는 세계 84개국 1,0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기구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실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다. 세계본부는 독일의 본에 위치해 있으며, 동아시아 본부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북한 등 6개국 도시들을 관할하며 2012년 10월에 개소하여 서울시에 있으며, 한국사무소는 2012년 10월 수원시가 유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한국지방정부학회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타 국제기구 방문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국제협력팀장을 포함한 사무국 대표단은 일본 삿포로 훗카이도대학교에서 개최하는 한국지방정부학회와 훗카이도대학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 "지방정부 국제교류 확대방안"에 참석하였다. 대표단은 국제교류 확대 방안을 위한 정보 수집과 타 단체의 국제행사 벤치마킹, 관련분야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학회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일정으로 일본 삿포로 소재 세계겨울도시시장 학회에 방문하여 조직구성과 회비제 운영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벤치마킹하였다.

한편, 한국지방정부학회는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회원수로 1,000명과 기관 20개가 가입되어있다. 주로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관련분야별 제도정책에 관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세계겨울도시시장회는 1981년에 설립되어 9개국 2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이다. 주로 회원도시간 국제교류, 정보교류, 인사교류, 청소년교류 등 1997년에는 UN의 홍보국 및 경제사회이사회에 NGO로 등록되어 있다

회원자치단체 동정

닝샤후이족자치구 - 중국

9월 닝샤 인촨에서 제2회 중국 - 아랍국가박람회 개최



중국 - 아랍국가박람회는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얻은 국가적 행사로, 중국 상무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닝샤후이족자치구 인민정부가 공동 주관하는 종합박람회이다. 2010년부터 "중국 - 아랍경제무역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총 3회에 걸쳐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으며, 2013년에 "제

1회 중국 - 아랍지역국가박람회"로 승격되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5년간 총 24명의 주요정계인사와 253명 장관급 간부, 104명 중국주재각국대사관 대표, 70여 개 국가 및 지역과 국제기구, 46곳 상공회의소, 6,200여 개의 대기업과 금융기관 대표 및 37,0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석유화학, 경공업, 금융, 기계제조, 가전, 자동차 조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결된 협력프로젝트가 636건에 달하고 있다. 이 박람회는 아랍지역국가를 비롯한 이슬람지역이 인정하는 행사로, 중국 및 관련국가의 고위층 네트워크의 장, 정책적 교류, 경제적 협력, 인문교류의 전략적 발판이 되고 있다.

올해는 9월 닝샤 인촨에서 제2회 중국 - 아랍국가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실크로드경제권 공동조성과 관련된 경제무역, IT, 농업, 인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회의 포럼 및 매칭, 국제할랄푸드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

이다. 이번 박람회와 초대국가로 요르단이 중국과 함께 경제무역, 투자, 관광, 문화 등 분야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후쿠이현 - 일본

페루 페스티벌 개최

일본 후쿠이현과 페루공화국은 2010년에 개최된 APEC에너지장관회의를 계기로 우호관계를 맺었다. 주일본페루대사가 6번 후쿠이현을 방문하여, 강연을 비롯한 '후쿠이현 페루 우호협회'를 설립했으며, 대학교에서 학술협정을 체결하는 등 민간뿐 아니라 학술레벨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음식문화와 역사를 포함한 두 국가간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등 교류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사관측의 협력을 받아 2월 22일(일)에 후쿠이현 국제교류회관에서 '페루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페루 대사의 강연뿐 아니라 페루(잉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전시회, 초청 주방장의 페루요리와 페루 민족의상 전시회 등이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후쿠이현의 관계자 모두가 페루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서, 보다 넓은 교류를 추진하는데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



2014년 페루 페스티벌 때의 모습

이시카와현 - 일본

이시카와현의 식문화 제안회 개최

작년 10월 동남아시아의 교통과 정보의 중심지이자 일본음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타니모토 마사노리(谷本正憲) 이시카와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시카와현 식문화 제안회가 개최되었다. 그 밖에도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호텔과 레스토랑의 탐셰프, 식품상사 및 바이어, 관광사업자, 정부 및 경제관계자 등 싱가포르 현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했다.

이시카와현의 식재료 및 조미료를 이용한 요리와 이에 걸맞은 이시카와현의 술이 '와지마누리(이시카와현 특산 칠기)'와 '쿠타니아키(이시카와현 사기그릇)' 등의 전통공예품 그릇에 담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여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음식과 더불어 춤과 노래, 피리와 현악기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연주도 있었고, 이시카와현의 식문화 매력을 종합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3월 14일에 이시카와현의 호쿠리쿠 신칸센(고속철도)이 개통되어, 도쿄

와 가나자와까지 2시간 28분만에 갈 수 있게 된다. 이시카와현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시카와현을 홍보하고, 이시카와현내 기업의 동남아시아 판로 확대와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 확대에 이어서도 노력할 것이다.



이시카와현 식문화 제안회

경상북도 - 한국

세계물포럼을 통해 물산업 메카 도약



금년 1월 2일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개최 D-100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날 경상북도에서는 숙박, 교통, 식음 분야 등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각 과정별 세부적인 프로그램 확정과 시·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세계물포럼에는 분과별 4개 과정(정치적, 지역별, 주제별, 과학기술)과 400여 세션별 행사 콘텐츠가 준비되었고 이밖에 문화행사, 관광투어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대구모 국제행사를 비 수도권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물 산업의 획기적인 기회로 삼고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물길 원정대, 세계물포럼 프로야구 네이밍데이, water story 콘서트, 물 테마 체험관 등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세계물포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유치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발로 뛰며 물산업 지도자와 기업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세계물포럼의 성공이 물산업의 기폭제가 되어 지역 활성화와 경북의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5 제7차 세계물포럼의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기획취재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

제주돌불축제 '2015 문화관광축제 우수축제'에 선정

제주도의 "제주돌불축제"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 축제 '우수축제'에 선정이 되었다. 제주돌불축제는 200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올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 큰 의미를 더했다.

'제주돌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 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에"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한 축제이다.

올해로 18번째로 개최하는 제주돌불축제는 3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새벽 오름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돌불의 희망, 세계로 번지다』를 주제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더 나아가 세계인에게 희망을 주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불 놓기도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이 되어 개최된다.

한편, 2015년 문화관광축제는 총 44개로서 대표 2개, 최우수 9개, 우수 10개, 유망 23개가 선정되었고, 또한 도두오래물축제가 신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는 등 제주시는 겹경사를 맞았으며, 선정된 축제는 등급에 따라 지원금(우수축제 1.5억원, 유망축제 0.9억원)을 받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모든 해외홍보와 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캄차카변경주 - 러시아

캄차카 전통 개썰매 경주대회 "Beringia" 개최



캄차카 변경주에는 전통적인 개썰매 경주인 "Beringia" 경주가 있다. "Beringia" 경주는 20년 이상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캄차카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원주민들에 의해 전통이 부활, 계승되고 있다. "Beringia" 경주는 1990년 1월에 제1회 대회를 시작하여, 제2회 대회 때는 경주 구간이 8배 늘어난 1,980km인 세계에서 가장 긴 개썰매 경주 구간으로 기네스북에 등록되었다. 2010년에는 캄차카 변경주에서 공식적인 축제로 인정 받아 매년 캄차카 변경주 정부 체육 및 청년 정책부에서 축제를 주관하며, 현재 정식 스포츠로 등록되어 있다.

매년 개썰매를 이용하여 북쪽 유목민 마을에 100kg 이상의 화용품, 책, 스포

츠 장비 등을 실어 나르는 등 "Beringia" 경주의 첫 시작은 인도적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규모가 큰 개썰매 경기가 벌어지면 대회출전을 위해 캄차카 반도 전역에서 개썰매를 끌고 이동하는데 최극단 북극지역은 포장된 길이 없기 때문에 대회장소까지 가기 위해 일주일 이상 걸려서 오는 팀도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아이들이 이끄는 개썰매 경기인 "Dyulin"(둘린)이 "Beringia" 경주 전 식전행사로 치러지고 있고, 여기에서 1등한 아이는 캄차카 변경주지사가 수여하고 부상으로 강아지가 주어진다.

올해는 몇 일에 걸쳐 진행되는데(2월 28일~3월 7일까지) 2월 28일에는 페트로 파블롭스크-캄차카시에 위치한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 개썰매 경기가 열리고, 3월 1일에는 엘리조보시 에소 마을에서 참가자들이 메인 개썰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연습을 한다. 메인 행사 이후 3월 7일에는 에소 마을에서 개썰매 경기, 축제의 마지막 날인 3월 8일에는 오쓰르 마을에서 경기가 개최된다. 한편, 축제가 개최되기 전, 1월 6일에 에소 마을에서 '어린이 크리스마스 개썰매 대회'가 개최되어 여러 지역 어린이들이 참가하였다.

부라티야공화국 - 러시아

부라티야 관광 박람회 '부라티야 관광과 휴양' 개최



제12회 '부라티야 관광과 휴양' 박람회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관광기업 프레젠테이션, 팸투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라티야 관광 박람회 '부라티야 관광과 휴양'은 부라티야와 바이칼 주변지역의 지역관광활성화와 더불어 러시아의 유망한 관광지역인 부라티야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라티야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부라티야 관광과 휴양' 박람회는 행사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관광서비스를 증진을 위해 회의, 협상, 의견교환, 제안 등의 비즈니스 테이블, 바이칼 주변지역 관광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 제공, 지역관광사업자 및 여행사와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의 기회마련, 지역의 우수한 여행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및 마스터클래스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11회의 박람회를 거치면서 '부라티야 관광과 휴양'은 바이칼 지역 전문관광포럼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 박람회에는 휴양시설, 호텔, 지역 공공기관, 레스토랑, 박물관, 어린이 캠프 등 매년 100여 개의 국내외 관광관련 기관과 이르쿠츠크주, 부라티야 공화국, 투바공화국 등 러시아 국내 관계자, 일본, 폴란드, 중국, 몽골 등 국외 관계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전문가와 방문객 등 7천 여 명이 박람회를 다녀갔다.

회원단체 행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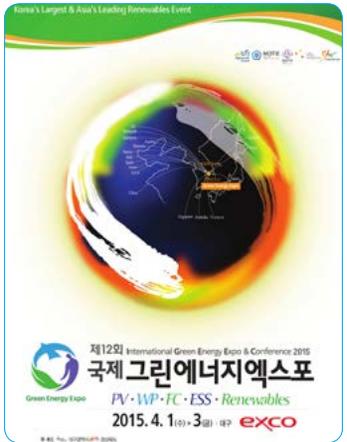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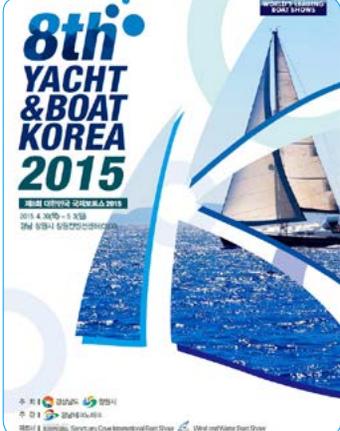
2015.3

Sunday	Monday	Tues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자치단체명 : 중국 허난성 행사명 : 올미년 황제고향 제례의식 2015 Worship Ceremony of The Hometown of The Yellow Emperor 기 간 : 3월 예정 장 소 : 신정시 연락처 : 정저우시위원회정부 T. +86-0371-67448741 F. +86-0371-67448741 Website: http://www.zhengzhou.gov.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자치단체명 : 일본 효고현 행사명 : 제13회 방재분과위원회 기 간 : 3.9 ~ 3.12 장 소 : 효고현 고베시 연락처 : 효고현 방재기획과 T. +81-78-362-9870 F. +81-78-362-9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크라스노아르스크변경주 행사명 : 의료포럼 '에니세이 메디칼' 기 간 : 3.10 ~ 12 장 소 : 크라스노아르스크시 연락처 : www.krastair.ru T. +7 (391) 22-88-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자치단체명 : 일본 돗토리현 행사명 : 돗토리 마라톤 2015 기 간 : 3.15 장 소 : 돗토리시 연락처 : 돗토리현 문화관광스포츠국 스포츠과 T. +81-857-26-7918 F. +81-857-26-8307 		

April

20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자치단체명 : 중국 허난성 행사명 : 제9회 중국(허난)국제투자무역상담회 (The Ninth China Henan International Investment & Trade Fair) 기 간 : 4월 예정 장 소 : 정저우컨벤션센터 연락처 : 허난성 외사판공실 T. +86-0371-66688841 F. +86-0371-66688841 E-mail: faohn05@126.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알타이변경주 행사명 : 국제 관광포럼 (Visit Altai) 기 간 : 4월 중 장 소 : 바르나울시 벨라쿠리하시 연락처 : 알타이 변경주 관광-휴양개발국 T/F. +7-3862-20-10-31 E-mail: priem@altur22.ru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경상북도 행사명 : 2015 제7차세계물포럼 기 간 : 4.12 ~ 4.17 장 소 : 대구엑스코 연락처 : 201대구경북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T. +82-2-6009-94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자치단체명 : 중국 산둥성 행사명 : 제16회 중국(소우광) 국제 아체 과학·기술 박람회 기 간 : 4.20 ~ 5.30 장 소 : 웨이팡시 소우광 연락처 : T. +86-536-5678212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5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 행사명 :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 기 간 : 3.6 ~ 3.15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T. 064-710-69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대구광역시 • 행사명 : 2015 대구국제섬유박람회 (PID) PREVIEW IN DAEGU 2015 • 기 간 : 3.11 ~ 3.13 • 장 소 : 대구EX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치단체명 : 일본 니이가타현 • 행사명 : 니이가타 사케노진 Niigata Sake Fair • 기 간 : 3.14 ~ 3.15 • 장 소 : 니이가타시 • 연락처 : 니이가타현 주조조합 T. +81-25-229-1218 F. +81-25-229-1220
11	18	2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 행사명 : '바이칼투어' 박람회 • 기 간 : 3.25 ~ 3.27 • 장 소 : 이르쿠츠크시 • 연락처 : 이르쿠츠크주정부 관광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부산광역시 • 행사명 : 제11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 기 간 : 3.26 ~ 3.29 • 장 소 : 벅스코 • 연락처 : 농업기술센터 		
25	26	2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대구광역시 • 행사명 : 제1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International Green Energy Expo & Conference 2015 • 기 간 : 4.1 ~ 4.3 • 장 소 : 대구EXCO • 연락처 : 그린에너지엑스포 사무국 T. +82-53-601-5371 http://www.energyexpo.co.kr/k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치단체명 : 중국 산둥성 • 행사명 : 2015황하 하구(동잉)국제 마라톤대회 2015 Yellow River Estuary (Dongying) International Marathon • 기 간 : 4.2(예정) • 장 소 : 동잉시 신세기광장 • 연락처 : T. +86-546-8928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 행사명 : 시베리아 보석 박람회 • 기 간 : 4.2 ~ 4.5 • 장 소 : 크라스노야르스크시 • 연락처 : www.krasfair.ru T. +7 (391) 22-88-611 	
1	2		4
8	9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 행사명 : 석유, 가스, 화학, 광산 시베리아 GEO 포럼 • 기 간 : 4.15 ~ 17 • 장 소 : 크라스노야르스크시 • 연락처 : www.krasfair.ru T. +7 (391) 22-88-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치단체명 : 중국 산둥성 • 행사명 : 제1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 기 간 : 4.23 ~ 4.25 • 장 소 : 도아마 테크노홀 등 • 연락처 : 도아마현 제조업 종합컨벤션 2015 실행위원회 T. +82-76-431-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 행사명 : 부랴티야 공화국 관광 박람회 '2015부랴티야 관광 · 휴식' • 기 간 : 4.17 ~ 4.18 • 장 소 : 올란우데시 	
15	16	17	
22	23	24	

제2회 NEAR 청소년에세이 공모전

공모전
개요

NEAR사무국에서는 회원단체간 실질적인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회원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14~18세)을 대상으로 제2회 NEAR청소년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했다. 동북아시아에 관련된 자유주제로 중국 6편, 일본 4편, 한국 9편, 몽골 5편, 러시아 22편으로 총 46편이 제출되었으며, 최우수작 1편과 각 국가별 우수작 1편씩 시상하였다.

제2회 NEAR 청소년에세이 | 우수상 (중국)

별판 전체에 가득한 차 찻잎 하나의 향기 -차문화로 살펴보는 동북아



텐진시
제20중고등학교 3학년
장위연(張媛)

달라 보이는 문화적 현상에는 비슷한 문화적 배경과 인문환경을 기초로 연관성이 있다. 차가 바로 그러하다. 차는 중국 쓰촨성의 명딩(蒙頂)에서 시작되었지만 은은한 차의 향기와 청아한 맛은 광활한 동북아시아 지역 곳곳에 자욱하다.

차를 마시기 전, 손가락은 어느덧 따뜻하고 매끄러운 찻잔을 어루만지고 있다. 중국의 다기는 가장 정교하고 세밀하기로 유명한데, 이싱(宜興)다기는 함축적이고 평온하지만 천년 역사의 향기를 품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다기는 당송대의 스타일이 많이 남아 있다. 작은 장식부터 전체적인 디자인까지 예스런 소박함의 아름다움이 담겨있다. 러시아의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사람들로 하여금 러시아의 풍부한 금속광물자원을 연상하게끔 한다. 몽골은 밀크티를 많이 마시고 다기가 거칠고 소박하며 꾸밈이 없어, 초원을 뛰어다니는 분방한 성격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물들은 역시 수 천 년간의 문화적 격돌과 융화가 수반되어 있을 것이며, 그 중 차가 담고 있는 의미는 동북아 각 지역에 뿌리를 내려 다양하게 눈 부시는 변화를 겪었다.

다실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긴다. 코끝에 어렴풋이 향기가 스치고 그 향기를 쫓아간다. 다도 선생님이 따르는 차 한잔의 그윽하고 수려한 향기는 방 안을 맴돈다. 깊은 차 향기와 중국 문화는 약속이나 한 듯 그 대범한 기개가 닮아 있다.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타민족과 자기의 문화적 성과를 향유하는 것을 낙으로 여겨 차 문화가 동북아시아 각 국에 흩어져 꽃을 피우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찾았은 이역 땅의 진귀한 보물로 여겨져 동북아 각 국간 경제통상 개척의 발길을 더욱 재촉했다. 찾아 무역은 고대 동북아 각국간 무역왕래에 있어 선봉부대라 할 수 있으며, 차문화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북아 각 민족 간 우정의 증거물이다.

오늘날 차 향기는 동북아 각 지역 모든 영역에 널리 흩어져 있다. 우리가 바라는 “차 향기”의 영혼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차 향기는 경제무역 영역의 원활한 교류이자, 발에 머무르는 이국의 기술이다. 그리고 수 없이 퍼져있는 유학생들이다. 또 중국 원난지역 지진 후에 러시아 대통령의 따스한 위문이고, 난징 유스 올림픽 한국 자원봉사자의 미소이다. 이국의 변화기를 걷고 있는 관광객, 동북아 시장에서 있는 이국의 상인들 모두가 차의 향기이다. 향기가 없는 곳은 없다. 모든 물건에 우리의 역사에 각인되어 있어, 동북아 각국의 경제, 문화, 생활에 녹아 있다. 그 기원은 멀고, 영원할 것이다.

역사는 진화하고 세상은 변한다. 천년 후 모든 것이 썩고 훼손되어도 차 향기는 인간의 문명 안에 맴돌 것이라 믿는다. 세월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모습이 바뀌어도 차 향기의 영혼은 영원할 것이며, 광활한 동북아의 산천에 흩날리며 조용히 동북아 각 민족, 각 국가간의 영원한 우정을 이어 줄 것이다.



제2회 NEAR 청소년에세이 | 우수상 <일본>

한국 중고등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배운점



시마네현
이즈모 니시 고등학교 2학년
미시마 아이이

올해 여름 시마네현청 주최로 한국 중고등학교 교류회에 참가했다. 한국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지만,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정치상황도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 후 보상문제' 등으로 옥신각신인 상황. 나는 과연 한국 중고등학생들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을 지 불안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았을 때, 처음에는 좀처럼 말을 걸기 어려웠으나 한국 학생들이 먼저 말을 걸었다. 게다가 유창한 일본어로, 나는 그 때 이미 놀랐다. 그녀의 이름은 최민지. 나보다 한 학년 후배. 그리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나에 비해, 유창하게 일본어를 하는 그녀를 보니, 한국 사람들은 매우 교양이 있음을 감탄했다. 그리고 조금씩 친해지면서 아티스트, 만화, 생일, 가족 구성원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우리 둘 사이는 가까워졌다.

첫 일정으로 '히로게 해변에서 해변가 청소를 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건너온 쓰레기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해안의 현상을 보여주었다. 한국 중고등학생들은 한국의 류류물이 많이 보여서 정말 미안하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한국 내에서 '바다불법폐기금지운동'으로 연결되길 바란다. 그 다음 일정은 이즈모시 명물인 '이즈모 소비'를 만들었다. 한국 학생들에게 '소비면 만들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직접 제스처를 선보이면서 열심히 설명했다. 한국 학생들이 잘 따라 해주어서 가르쳐준 보람을 느꼈다. 완성된 '소비'는 모두의 노력 때문인지 매우 맛있었다. 그 다음 일정은 마지막 메인이벤트인 이즈모시 국제교류회관에서 교류회를 가졌다. 이즈모니시고교 IAC 봉사활동보고를 비롯해 한일친선 스포츠대회도 열렸다. 그 후, 한국 중고등학생들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노래와 춤 그리고 태권도 등 매우 흥미로웠다. 그 후, 8월 16일에 개최되는 '이즈모시 캔들나이트(촛불 축제)'에 출품할 그림을 그렸다. 다 같이 한일간의 유대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개성 넘치는 그림을 그렸다. 매우 즐거웠고 기억에 남는 교류회였다. 헤어지기 전에 선물교환 시간이 있었다. 나는 일본 만화 퍼즐을 주었고, 파트너인 최민지 양은 매우 기뻐했다.

이번 만남은 2014년 7월 23일이라는 단 하루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중한 하루였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교류회가 끝난 후에도 최민지 양과 메일을 주고받고 있으며 나에게 한국 친구가 생겼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일관계는 지금 냉전 상태이지만, 우리 젊은 층은 이러한 알찬 교류를 가질 수 있었다. 한일, 중일 간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도 젊은 층간의 교류는 긴장완화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상대방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닌, 그가 가진 장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감하게 교류(도전)하면 그만큼 '무언가의 시작'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을 우선 우리 젊은 층과 새로운 세대가 개척해나갈 것을 나는 바란다.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Daegu & Gyeongbuk,
Rep. of Korea

2015 세계물포럼

“2015 세계 물포럼”이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Water for Our future”이라는 슬로건으로 참석규모는 물 전문가 외에 정치인, NGO, 언론계, 기업인 등 물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며, 1997년 처음 개최 당시 63개국 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나 제7차 세계물포럼 (대구·경북) 170여 개국 3.5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WC)가 3년마다 개최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로,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 매년 3월 22일)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도출, 비즈니스 차원에서 물 EXPO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물포럼 개최 배경은?

물포럼 자체가 생소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인류의 미래를 위한 “물”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21세기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세계 사회 전반에 주요 정치 현안으로 자리매김했고, 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세계 물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물 전문가관과 정부부처 그리고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세계물위원회가 1996년에 설립되었고, 이듬해인 1997년에 전 세계 물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세계물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개최된 국제물포럼은 어떠했을까?

지난 18년간 세계물포럼은 모든 물 이슈를 논의하는 거대한 장으로 발전해왔다. 개최된 6번의 포럼은 세계 물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6회 포럼의 핵심가치를 달리 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다. 바로 지난 6차 세계물포럼의 경우 “Time for Solution”을 핵심가치로 1,000여 개가 넘는 물 관련 해법을 수집함으로써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

올해 개최하는 제7차 국제물포럼에서는...

앞선 포럼에서 수많은 해법들이 언급이 되었는데 반해,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물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포럼에서는 그 핵심가치를 “실행”을 두고 개최된다. 국제물포럼에서는 4개의 주요과정(주제별·정치적·지역별·과학기술)과 시민포럼, 물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별 과정은 세계물포럼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세계물포럼 개최 전까지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정치적 과정 등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 정치적 과정은 전지구적 물 이



2013년 3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세계물포럼 깃발 인수



2014년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 개최

슈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장관,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등이 함께 역동적으로 3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지역별 과정은 전세계 대륙별, 인접지역별로 당면한 물 문제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물 관련 현안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과학기술과정은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단계에서 제안하여 신설된 과정이다. 이 과정은 물 관련 최신 기술 및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 특별프로그램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진행된다.

프로그램 이름	내용
워터쇼케이스	온라인 공모를 통해 물 분야 혁신사례를 선정하는 경연대회
월드워터 챌린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물 문제를 찾고, 그 도전과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법을 제안하는 과학기술과정
대구경북 워터프라이즈	위의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가장 혁신적인 사례를 제7차 세계 물포럼 폐회식에서 수상

이밖에 이번 물포럼은 세계적 규모의 국제 물 관련 전시회인 "세계물포럼 Expo & Fair" 도 본 행사 기간에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된다. 전시회는 각국의 물 관련 정책 및 최신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 참가자들간 국제적인 물 산업 동향을 공유함과 동시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계 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물 주제 영화제,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참여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물포럼 개최도시

포스터 사진



1997 Marrakech, Moroc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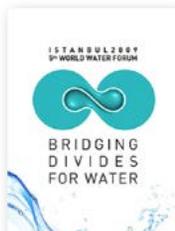
2000 The Hague, the Netherlands



2003 Kyoto, Shiga and Osaka, Japan



2006 Mexico City, Mexico



2007 Istanbul, Turkey



2012 Marseille, France



NEAR사무국에서의 1년 근무를 마치며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해외파견공무원(중국, 몽골, 러시아)이 NEAR사무국 파견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성큼 다가왔다.

봄에는 NEAR 실무자워크숍을, 여름에는 NEAR국제포럼을, 가을에는 제 10차 NEAR총회가 개최되는 등 작년에는 특히, NEAR사무국에서 많은 행사를 치렀다. 각 행사가 개최할 때마다 늘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해외파견공무원들에게 고국에 돌아가기 앞서, 인터뷰를 하였다.

중국 산둥성 | 치흥정

Q1 항상 출퇴근길에 씩씩하게 걷고 있던 흥정씨 모습이 떠오르네요, 사무국을 떠나기 전에 느낌이 어떠신가요?



시간은 꼭 창 밖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참새처럼, 순식간에 눈 앞을 지나 벌써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면, 일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버려, 무언가를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 굉장히 아쉬워요.

일기를 보면, 한국에서의 일상이 어제처럼 뚜렷하게 생각납니다. 대구에서의 실무자워크숍, 전라남도에서의 총회, 하바롭스크의 국제포럼, 경주 역사문화유산

탐방 등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제 머릿속에 선명히 떠오를 정도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사무국에 근무하면서 대구로 국제행사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지만 부족한 한국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이 뿐만 아니라, NEAR사무국에 계시는 상사분들의 세심한 보살핌과 동료들의 따스함과 응원을 얻을 수 있어서 NEAR사무국에서 만났던 사람과 업무는 두고두고 회상할 만큼 일생 동안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일년 동안, 헤어짐의 슬픔과 섭섭함이 있었지만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일년 동안, 일찍이 서로가 만났어야 할 사람과 인연을 맺었고, 그간 마음에 담아뒀던 근심을 털어 낼 수 있었어요. 또한 일년 동안 포기하는 법과 소중한 것에 대한 약간의 깨달음, 소란스런 공간에서 조용히 평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년 동안 걸었던 많은 길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해준 따스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몽골 흠스굴아이막 | 바트소이르 온드라흐

Q1 사무국에 파견돼서 근무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가네요.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일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지난 2014년 봄에 한국 포항시 소재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파견 근무하게 되어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날로부터 1년이 채 안 된 기간이 지났어요. 지금 돌이켜 제가 살았던 포항시는 평화롭고 안전한 도시였고, 제가 근무했던 연합 사무국 직원들은 친절해서 업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으로 새롭게 배우는 등 하루 하루를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문화도 모르고 한국어도 할 줄 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게 되었고, 업무차원에서 또는 주말에 개인적으로 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러시아에서 온 동료인 안나와 함께 한 제주도 여행, 인천 팸투어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주도 여행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던 한국 사람들, 주황색으로 물들어진 굴밭, 아름다운 섬 경관, 송도 신도시 개발모습, 자주 가보고 싶은 정도로 친근하게 느껴지는 포항의 바다를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Q2 NEAR사무국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는데요, 사무국 업무는 어떠했나요?

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에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한

직장인이 되어 그들의 업무방식과 경험, 그 나라의 문화, 사고방식 특징을 알고 서로 친구가 되었고, 몽골단체와 유익한 정보와 자료수집, 홈페이지 지원 등 연합활동에 제 기여를 조금이나마 했으리라 생각하니 나름 뿌듯해요. 그 전에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고, 지식도 적었는데 사무국에 근무하면서 행사 참여, 각종 자료 번역,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혔고, 이 지역의 국가들, 교류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동안의 제가 얻은 경험과, 지식이 앞으로의 업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마지막으로 사무국 직원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그 동안 업무적으로 아낌 없이 도움과 가르침을 주셨던 연합 사무국 직원들과 사무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지원을 해 주셨던 몽골의 동료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두가 만사형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 안나 라만

Q1 사무국에 파견돼서 근무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가네요.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일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1년 동안 사무국에 파견되어 여러 행사를 치렀고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단연 러시아 국제 포럼 공동개최 협의 차 몇 차례에 걸쳐 하바롭스크시를 방문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제가 이런 큰 규모의 국제행사를 준비하면서 귀중한 경험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 일본, 한국, 몽골의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국가마다 다른 규정과 절차를 지닌다는 것, 또 포럼 연사들의 발표문을 번역하면서 모순된 동북아 지역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고, 동북아의 특성과 여러 국가의 공통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사무국 내의 동료들과 분명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럼 준비 전반에 걸쳐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협력파트너가 되었어요. 또 저에게 동북아의 전문지식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 많은 유용한 인적 네트워크는 포럼이 저에게 준 값진 선물들이에요.



Q2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을 말해주세요.

제가 사무국으로 파견을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이르쿠츠크주와 한국의 협력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분야를 공부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한국의 여러 곳을 두루 다녀보았어요. 한국은 교통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 한국의 아름다운 곳은 가장 멀리 떨어진 땅끝이라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편리했어요. 제가 다녀온 곳 중에 인상 깊고 매우 흥미로웠던 곳은 인천 송도, 제주도, 운문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인천 송도는 국제기업, 사무실, 비즈니스센터, 전시장, 현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교육기관 등 역동적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발전하는 한국의 비즈니스를 볼 수 있어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에 잘 부합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제주도 여행은 계획되지 않은 즉흥적 선택이었는데 짧은 여행기간 동안 아늑한 공원, 굴 정원, 주요 박물관, 전통시장 등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특히나 제주도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마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인간적이고 착한 한국인은 이 제주도에 살고 있다고 믿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천 년의 숨결이 흐르고 있고, 가장 큰 불교 교육기관인 비구니사찰 운문사는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경치에 매혹되었어요.

Q3 마지막으로 사무국 직원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저는 이 기회를 빌어, 편안한 직장생활과 한국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을 많이 주신 김재호 전NEAR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또 특별히 최주화 러시아전문위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훌륭한 유머 감각과 러시아의 영혼을 가진 최주화 전문위원은 저에게는 사무국에서 일하는 동안 단순한 직장동료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2016년까지 이르쿠츠크주가 NEAR의 의장단체이니만큼 제가 러시아 본국에 돌아가도 사무국과의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거예요. NEAR 회원단체 여러분! 2015년 실무위원회와 2016년 총회 개최지, 이르쿠츠크에서 저는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게요!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790-8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자곡로 394(지곡동 601) 포항테크노파크 3층

T. 054-223-2308, 2324 F. +82-54-223-2309 E-mail near@neargov.org Website www.neargov.org